

에히메: 사랑, 전쟁, 교육*

박균섭**
kspark@knu.ac.kr

<目次>

- | | | |
|-----|-----------|-----------|
| 1. | 3.2 | (坂の上の雲ミュー |
| 2. | ジアム) | |
| 3. | 4. | |
| 3.1 | (村上水軍博物館) | |

主題語: 에히메(Ehime Prefecture), 신공황후(Jingu Empress), 무라카미수군 박물관(Murakami Suigun Museum), 언덕위의 구름박물관(Saka No Ue No Kumo Museum), 반전·평화 교육(anti-war and peace education).

1. 에히메 연구를 위한 전제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한 현인 에히메현(愛媛県)은 시코쿠 북서부에 있는 현으로, 북쪽으로 세토내해(瀬戸内海: 일본의 本州-四国-九州 사이에 있는 해역), 서쪽으로 분고수도(豊後水道: 大分県-愛媛県사이의 해역)와 접한다. 에히메현은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한 현이다.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시(松山市)는 온천과 성곽과 문학의 도시로 불린다. 마츠야마시에서는 신공황후담과 히메다루마인형,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를 기념하는 마츠야마시립 시키기념박물관(松山市立子規記念博物館),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츠야마중학교 교사 시절(1895~1896)과 명작 『도련님』(坊っちゃん, 1906)의 기억공간,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 1968.4.22~1972.8.4)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예찬론의 본거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인기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2001)의 배경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에히메현의 이마바리시(今治市)에는 무라카미수군박물관(村上水軍博物館)이 있다. 무라카미수군박물관은 42개나 되는 일본의 해양박물관 중에서도 특히 왜구의 활약상과 활동궤적을 기억·전시하고 축제의 거점으로 삼는

* 이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6회 국제학술대회(2017.10.21. 일본 에히메대학)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910년의 한국 침략과 전쟁범죄의 가해자 입장이었던 일본, 한국을 강점한 식민지 모국으로서의 일본은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일본의 위기의식과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대응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 2010년을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 각종 학술잡지와 심포지엄은 병합조약의 불법·무효성, 식민지 지배의 실상과 그에 대한 전후 책임 등을 다루기도 했다. 이 일련의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에 대해 일본 내부의 보수우익세력은 『언덕 위의 구름』(1968.4.22~1972.8.4)을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하는 과정(2009.11.29~2011.12.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침략본능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추억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¹⁾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방영된 스페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은 전후 일본이 전전·전중의 일본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기조·추세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침략은 범죄가 아니라 진출이고 전쟁은 범죄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악질적 형용은 드라마 시청자인 일본인들의 무의식에 침투하여 제국·군국 일본의 이미지에 걸맞는 국민상을 재구성·재창출하는데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현대의 다수 일본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집합적 기억으로 공유토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자, 그 과정에서 일본사회의 우경화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²⁾

일본 내의 이중구조를 읽어내는 여러 접근법의 하나로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에히메현의 근현대사에 대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히메 연구의 전체적 구성을 위해, 사랑·전쟁·교육이라는 장별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 논의를 통해 에히메현 관련 논의의 심층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랑의 장에서는 “에히메, 사랑스럽다는 여인 신공황후”를 주제로 삼아 정한론 에너지를 사랑으로 포착하는 그들의 집단무의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전쟁의 장에서는 “왜구·전쟁의 기억과 전사”를 주제로 삼아 역사적 기억의 왜곡과 성찰 없는 역사의 재현·전시행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의 장에서는 “반전·평화교육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삼아 전후 에히메, 나아가 전후 일본의 가는 길은 어떤 반성의 공간과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에히메 관련 선행연구로는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 고대한국 전승, 임진왜란 전승과 예능, 지역문화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³⁾ 이에 더하여 에히메 연구에 소용될

1) 김명수(2011)「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동북아역사논총』34, pp.363-404

2) 허석(2016)「근대일본의 텍스트적 재현과 그 이데올로기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드라마 <아쓰히메>와 <언덕 위의 구름>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69(1), pp.259-283

3) 노성환(2016)「일본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일본문화학보』71, pp.25-45; 노성환(2017)「일본 에히메의 고대한국 전승」『일본어문학』77, pp.333-356; 노성환(2017)「일본 시코쿠의 임진왜란 전승과

일본 근현대사 관련 여러 기사 및 논저를 선행연구 분석의 형태로 본 연구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에히메의 근현대사에 대해 사랑-전쟁-교육을 부제로 특정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본론의 하위 개념으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에히메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본론과 에히메론 사이의 점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에히메 연구의 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론의 장으로 일본론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반전·평화교육론과 에히메현의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반전·평화교육론의 일별과 종합을 통해, 반전·평화교육론의 발생사 및 구조적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에히메, 사랑스럽다는 여인 신공황후

에히메현(愛媛県)이 등장하기 전의 이요국(伊予国)은 마츠야마번(松山藩), 사이조번(西条藩), 고마즈번(小松藩), 이마바리번(今治藩), 오즈번(大洲藩), 니야번(新谷藩), 우와지마번(宇和島藩), 요시다번(吉田藩) 등의 8개 번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나중에 8개의 번 중에서 사이조번, 고마즈번, 이마바리번, 마츠야마번을 합병하여 마츠야마현(松山県)이라 명명하였고, 오즈번, 니야번, 요시다번, 우와지마번을 합병하여 우와지마현(宇和島県)이라 명명하였다. 1872년에 마츠야마현(松山県)을 이시즈치현(石鉄県)으로, 우와지마현(宇和島県)을 가미야마현(神山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873년에 이시즈치현과 가미야마현을 합병하여 에히메현(愛媛県)이라 부르게 되었다.⁴⁾

『고사기』에는 “이요국은 에히메라 한다[伊予国謂愛比売: いよのくにはえひめといふ]”는 말이 나온다.⁵⁾ 에히메현의 옛 이름 이요국(伊予国)은 중세일본의 규슈와 시코쿠 지방의 중심지(“九州四国のかなめ所”)였다.⁶⁾ 에히메현에서는 이요국(伊予国)의 ‘요(予)’자에 방위를 붙인 도요(東予), 주요(中予), 난요(南予) 지방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도요(東予): 니이하마시(新居浜市), 시코쿠주오시(四国中央市), 사이조시(西条市), 이마바리시(今治市), 오치군(越智郡) 가미지마정(上島町).

주요(中予): 마츠야마시(松山市), 이요시(伊予市), 도온시(東温市), 가미우케나군(上浮穴郡) 구마코

예능」『일본문화학보』73, pp.187-212; 구건서(2017)「일본 에히메현에 있어서 지역문화정책의 특징」『일본학보』111, pp.195-214

4) <https://ja.wikipedia.org/wiki/伊予国> (검색: 2019.11.01.)

5) 『古事記』, 卷上, 「於是伊耶那岐命先言…」

6) 川岡勉・西尾和美(2004)『伊予河野氏と中世瀬戸内世界: 戦国時代の西国守護』愛媛新聞社

겐정(久万高原町), 이요군(伊予郡) 마사키정(松前町), 도베정(砥部町).

난요(南予): 우와지마시(宇和島市), 아와타하마시(八幡浜市), 오즈시(大洲市), 세이요시(西予市), 기타군(喜多郡) 우치코정(内子町), 니시우와군(西宇和郡) 이카타정(伊方町), 기타우와군(北宇和郡) 마츠노정(松野町), 기호쿠정(鬼北町), 미나미우와군(南宇和郡) 아이난정(愛南町).⁷⁾

에히메(愛比売-愛媛)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뜻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표상되는 에히메현은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현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⁸⁾ 오랜 역사적 추이와 집단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사랑스러운 여인을 상징하여 이를 기억하는 방식은 일본의 전전·전중·전후의 궤적과 행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대일본의 팽창주의·군국주의·제국주의는 메이지시대의 정한론을 에너지원으로 삼은 것이며, 그 원형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담에서 찾는다.⁹⁾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은 역사적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정한론 에너지가 발산될 때마다 괴물처럼 등장하여 위력을 발휘해왔으며, 그 기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극우세력의 활동궤적에 달라붙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공황후는 일본을 신국시하는 신국사상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그 공격의 전면에는 항상 조선멸시론·정한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지 일본 팽창주의·군국주의·제국주의의 현대판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¹⁰⁾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해외침략 슬로건이었던 ‘신국일본’은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신국일본’이라는 말이 공공장소에서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다. 많은 일본인에게 ‘신국’이라는 말은 1945년 이전에 일본이 걸어온 잘못된 길을 떠오르게 하는 치욕스러운 말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극우세력은 여전히 신국이라는 말을 치욕이 아닌 영광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정한론자 및 침략·지배세력은 신공황후가 정벌군을 이끌고 삼한을 정복한 결과¹²⁾, 삼한 땅은 500년 동안(3세기~8세기) 일본의 속주였다는 역사론을 펼쳐왔다.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은 일본인들이 품고 있는 메이지시대에 대한 향수나 집착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¹³⁾

7) <http://www.pref.ehime.jp/index.html>(검색: 2018.07.01.)

8) 角南圭祐(2007)「에히메가 보여준 일본의 무지」『한겨레21』2007년6월14일

9) 『日本書紀』199年[仲哀紀8年]秋9月5日~200年[仲哀紀9年]12月14日

10) 이기용(2007)「일본침략사상의 원형인 신공황후설화」『일본사상』13, pp.77-98

11) 佐藤弘夫(2006)『神国日本』筑摩書房. 성해준 역(2014)『신국일본』논형, p.5

12) 『日本書紀』199年[仲哀紀8年]秋9月5日~200年[仲哀紀9年]12月14日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이 형성된 배경으로, 백제를 돕기 위해 들어온 왜군이 백강(白江)=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대패했던 역사를 들기도 한다.¹⁴⁾ 헤이안시대 말기에,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여원연합군의 1·2차 침략 이후 증폭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공황후-도요토미 히데요시-메이지일본의 군국주의로 이어지는 억지 논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침략본능을 일깨우는 강한 자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건물 중앙홀의 천정벽화에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그려 넣은 것도, 그들의 조선 지배는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을 재현한다는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¹⁵⁾ 하지만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은 한국고대사와는 무관한 얘기, 역사적 허구일 수밖에 없다. 당시 국제관계나 조선·항해술 등을 고려할 때에 현실로서 일어나기 어려운 역사 조작일 수밖에 없다. 이를 논하기 위해, 우선 일본 신화시대의 마지막 신의 아들로써 역사시대를 열었다는 신무천황(神武天皇)이 미나미규슈의 미야기현에서 야마토국을 정복하는 배를 띄웠다는 신무천황 동방원정(神武東征) 신화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신무천황이 일본을 통일한 후 내세웠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신공황후의 궤적도 그와 같은 방향성을 띠는 정벌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¹⁶⁾ 신공황후담에 등장하는 신라는 김석형의 분국설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신라가 아닌 기타규슈에 있는 신라소국을 일컫는다는 견해도 있지만¹⁷⁾, 그 신라는 백제의 신라정벌 기사에서 주어를 일본으로 바꾸는 왜곡·재구성을 통해 일본의 신라정벌 기사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히메현의 유명한 관광상품으로 히메다루마(姫だるま) 인형이 있다. 히메다루마의 기원에

13) 정경모(2009)「조선 침탈 원흉 길러낸 요시다 쇼인」『한겨레』2009년9월8일

14) 노성환(2017)「일본 에히메의 고대한국 전승」『일본어문학』77, pp.333-356

15) 노성환(2016)「일본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일본문화학보』71, p.29. 『일본서기』에서 신공황후의 섭정원년을 201년으로 설정했던 것은 『삼국지』 「왜인전」(『三国志』, 卷30, 魏書第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倭人傳」)의 한 구절에 등장하는 히미코(卑彌呼)를 신공황후와 동일인물인 것처럼 각주를 달아, 허구성이 강한 존재 신공황후에게 실재성을 부여하려는 공작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나 시라토리 구라기치(白鳥庫吉)의 경우, 야마토조정의 존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일본문화의 독자성과 천황 중심 국가체제의 유구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나이설(畿内説)을 기각하고 규슈설(九州説)을 채택하였다. 규슈설의 핵심은 중국황제에게 사대/신중하는 히미코를 야마토조정의 역사에서 배제하는데 있었다. 야마토조정의 일관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려는 쪽에서 볼 때 히미코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다. 그 흐름에서 『삼국지』 「왜인전」의 가치를 되도록 낮게 보려는 역사관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옹당 역사 서술에서 히미코를 규슈로 추방한 다음에, 삼한 정벌이라는 공적을 쌓은 신공황후를 앞세워 신화에 바탕을 둔 신성한 황국의 역사를 새로 조립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탈했던 1910년에 규슈설을 강조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도 동일 맥락으로 보면 된다[吉野誠(2004)『東アジア史の日本と朝鮮』明石書店. 한철호 역(2005)『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책과 함께, pp.41-42].

16) 신영우(2013)「“발탁함대 격과 전법을 왜구에게 배웠다” 자랑」『충북일보』2013년2월5일

17) 김화경(2009)「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설화의 연구」『동아인문학』15, pp.1-32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원연합군의 2차 침략(1281) 때에 전사한 고노 미치도키(河野通時, ?~1281)의 딸을 형용한 것이라는 설과,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신공황후 때에 태중왕자(胎中王子)[나중의 응신천황(應神天皇), 훗날 전쟁의 신 하치만사마(八幡様)로도 불린다.]를 임신한 신공황후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라는 설로 나뉜다. 전쟁의 신 응신천황=하치만을 받드는 하치만신앙 역시,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이후에 증폭된 것으로, 이는 과거 신라가 반복해서 일본을 공격했다는 ‘창조된 과거’의 기억과 결합·응축된 산물이기도 했다.

먼저 히메다루마가 고노 미치도키의 딸을 형용한 것이라는 설에 대해 살펴보자. 신국일본의 역사를 표방하는 자들은 일본의 가마쿠라막부가 여원연합군[元寇]의 두 차례에 걸친 침략(1274, 1281)을 계기로 내셔널리즘을 장착하게 되었으며, 이는 메이지일본의 청일전쟁(1894~1895) 및 러일전쟁(1904~1905)의 승리와 함께 신국일본의 불패신화로 이어졌다고 얘기한다. 일본의 왜구 연구자들은 왜구의 행태를 기술하면서 이를 여원연합군의 일본침략에 대한 보복성 노력질이라는 보복론을 내세우기도 한다.¹⁸⁾ 원구(元寇) 때문에 왜구(倭寇)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통해 책임을 왜구가 아닌 원구에 떠넘기는 책임전가론·책임회피론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구의 속성에 대해, 환중국해를 무대로 삼아 무역활동을 펼치거나 폭력을 동반한 약탈행위를 일삼는 해상세력(海民)¹⁹⁾으로 규정하는 관점에 유의한다면, 위의 책임전가론·책임회피론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그들이 왜구의 시말을 논할 때마다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들먹이는 것은 일단 여원연합군의 침략이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고노 미치도키의 딸을 형용했다는 히메다루마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히메다루마를 여원연합군의 일본침략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그리 강력한 내러티브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일본의 집단무의식, 그 창조된 과거의 기억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히메다루마 내러티브는 신공황후와의 관련 속에서 그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내셔널리즘의 폭발력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침략본능은 역시 가마쿠라막부 때의 여원연합군에 소재를 갖다 대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갖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이 어차피 역사적 허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관해서는 더 근원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다.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의 도고(道後)는 661년(齊明 7) 1월 14일 제명천황(齊明天皇)이 이곳을

18) 松本重彦(1944)「元寇掃蕩の教訓」『文教の朝鮮』1944年9月號, pp.13-32; 読売新聞文化部(2014)『愛唱歌ものがたり』岩波書店

19) 網野義彦(2005)『日本の歴史をよみなおす』筑摩書房. 임경택 역(2015)『일본의 역사를 새로 읽는다』돌베개; 小野林太郎(2011)『海域世界の地域研究: 海民と漁撈の民族考古学』京都大学学術出版会

들러 숙박했다는 역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제명천황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백제를 돕기 위해 군사를 대거 파견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백강=백촌강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배했으며, 제명천황도 규슈 후쿠오카로 직접 가서 이를 진두지휘하다가 661년(齊明 7) 7월 24일에 이곳 아사쿠라노미야(朝倉宮)에서 죽음을 맞은 비운의 여제였다.²¹⁾ 바로 이같은 패배·비운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던 그들의 심리가 신공황후 신라정벌담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이 신라에 대패한 역사를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이를 이진 역사로 뒤집은 것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이며, 그렇다면 신라정벌담의 실제 모델은 신공황후가 아니라 제명천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²²⁾

에히메현의 히메다루마 내러티브에는 지방의 영웅보다는 중앙의 영웅이었던 신공황후가 야마토를 출발하여 이곳에 이르러서 신라에 갔다고 하는 전승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짙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히메다루마의 기원을 중세나 고대의 인물에서 구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내러티브의 본격적인 조립 시기는 메이지시대였으며, 그 중심에는 신공황후 신앙과 하치만 신앙이 작용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에히메현에는 신공황후 전승과 전쟁의 신 하치만사마(八幡様)=응신천황(應神天皇)을 제신으로 삼는 하치만계신사(八幡系神社)가 많이 분포되어있다.

히메다루마를 생산하고 있는 마츠야마시 도고(道後)는 다른 지역보다 신공황후에 대한 신앙이 짙게 퍼져있다. 도고에 설립된 신공황후를 제신으로 삼는 하치만계열의 이사니와신사(伊佐爾波神社)는 유즈키하치만(湯月八幡), 도고하치만(道後八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응신천황(譽田別尊)-중애천황(足仲彥尊)-신공황후(氣長足姬尊) 세 사람을 모두 제신으로 모시는 하치만계열의 신사이다.²³⁾ 메이지일본의 신공황후 신앙은 일본 전체적인 현상이었지만, 특히 에히메현의 경우 그 현상이 짙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메다루마(姫だるま)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도고에서 만들어지는 히메다루마 인형의 유래를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에서 찾게 된다.²⁴⁾ 신공황후가 도고온천에 체류하는 동안 회임을 하고 그 후 지쿠젠의 나라에서 응신천황을 출산하였다고 전해지며, 이를 기념하고 회고하는 마음을 담아 응신천황을 임신한 신공황후의 모습을 진홍 풀솜 싸개에 싸여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형용한 것이 바로 히메다루마

20) 『日本書紀』661年[齊明紀7年]春正月6日~14日. 『일본서기』에는 당시 도고의 선착장으로 지정되는 니키 타츠(熱田津)와 온천 임시궁궐로 지정되는 이와유노카리미야(石湯行宮)가 등장한다.

21) 『日本書紀』661年[齊明紀7年]秋7月24日

22) 水野裕(1985)『日本古代の国家形成』講談社, pp.164-170; 노성환(2016)「일본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일본문화학보』71, p.37에서 재인용

23) 노성환(2016)「일본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일본문화학보』71, p.37

24) 위의 논문, p.37

인형이라는 것이다.²⁵⁾ 히메다루마 인형에 관한 내러티브, 이는 사랑스러운 여인 에히메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정한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으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쟁의 상징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왜구·전쟁의 기억과 전시

3.1. 무라카미수군박물관(村上水軍博物館)

일본의 세토내해에서는 여름마다 왜구의 용감성과 호전성을 기리기 위한 각종 축제가 벌어진다. 섬과 섬을 잇는 해로가 중요한 통행로인 일본에는 곳곳에 왜구·해적 집단이 준동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왜구·해적 집단이 전성기에는 1만3천 명을 웃도는 무라카미(村上)파였다. 이들은 히로시마에서 시코쿠의 에히메에 이르는 여러 섬들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나중에는 노지마(能島), 구루시마(來島), 인노시마(因島)에 각기 소굴을 두었기에 삼도 무라카미(노지마 무라카미, 구루시마 무라카미, 인노시마 무라카미)라고 불렸다. 노지마와 구루시마는 에히메 현 이마바리 앞바다에 있고, 인노시마는 히로시마현 앞바다에 있다.

세토내해 주변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무라카미 수군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중 왜구 소굴의 본체인 수군성(水軍城)이 잘 남아있는 인노시마에 사람들이 몰린다. 가장 큰 행사가 왜구의 침략·노략질에 이용했던 고바야부네(小早船)를 연상케 하는 소형선 경주이며, 고바야부네가 귀환하는 장면에서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바닷가로 나가 흥겹게 손을 흔든다. 축제는 저녁까지 이어지며 이때의 불꽃 축제는 먼 바다를 돌면서 온갖 살상·방화·노략질을 일삼았던 왜구의 역사적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꽃·열광·축제만이 남는다. 왜구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낭군이자 용맹스러운 아버지였다. 이들을 반기는 가족들의 퍼포먼스 어디에도 왜구라는 존재의 잔인성·잔학상에 대한 죄의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²⁶⁾ 왜구의 만행은 한국사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 명의 절강성 등에 상륙한 왜구들은 침략하여 약탈하고 술자리에서 잡아온 임산부들의 배를 찢러 태아감별 내기를 하며 놀았는데, 임산부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다.²⁷⁾ 이러한 만행을 일삼는 왜구

25) <http://www.city.matsuyama.ehime.jp/lang/ko/products/index.html>(검색: 2017.10.26.)

26) 신영우(2013)「왜구: 매년 성대히 재현하는 왜구 축제」『충북일보』2013년1월29일

27) 김희영(1990)『이야기일본사』청아출판사, p.173; 최문정(2009)『문학사를 통해서 본 한일의 지배이념과 문화(상)』고전산책, p.58에서 재인용

를 막기 위해 명나라에서는 왜구의 출입을 일절 금했다. 이러한 사실이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²⁸⁾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시코쿠를 지배한 영주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의해 조선으로 출병하였다. 그 결과 시코쿠의 전역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와 유적들이 무수히 남아있다.²⁹⁾ 에히메현에는 매년 지역의 신사에서 벌이는 축제 가운데 임진왜란과 관련된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와지마시(宇和島市)의 우시오니(牛鬼)라는 괴수의 춤(놀이)과 마츠야마시(松山市)의 도라마이(虎舞)라는 호랑이 춤을 들 수 있다.³⁰⁾ 400년도 훨씬 넘긴 오늘날에도 그들에게 임진왜란 관련 전쟁범죄는 축제의 이름으로, 놀이의 한판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전전의 왜구 연구에서 당시 소위 대일본제국의 아시아지역 영토 확장 과정에서 그 활동은 일본인의 대륙 발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빛나는 활동으로 묘사했던 데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왜구의 활동을 일본인의 해외 개척, 영토 확장, 국위 선양의 본보기로 찬양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인데 이는 <왜구=고려(조선)인 실체설>이나 그 확장판 <왜구=다국적·다민족설>보다는 <왜구=일본남아설>에 대한 그들의 선호의식이 짙게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¹⁾

2019년 현재 일본에는 42개의 해양 박물관이 있다. 해양박물관에는 대부분 해양사 및 왜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에히메현의 이마바리시는 2004년에 전국시대 이래 세토내해에서 준동했던 왜구(그들의 표현으로는 무라카미수군)의 생태와 활동상을 전시하기 위해 무라카미수군박물관(村上水軍博物館)을 개설하였다. 무라카미수군박물관 입구에는 왜구의 두목 무라카미 가케치카(村上景親)의 조각상도 세워져있고, 박물관을 알리는 돌판에는 극우작가 미시

28) 최문정(2009), 위의 책, pp.58-59

29) 노성환(2017)「일본 시코쿠의 임진왜란 전승과 예능」『일본문화학보』73, pp.187-212

30) 위의 논문, pp.187-188

31) 中田稔(2010)「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제2분과 일본편)』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p.204. 전전·전종과 전후의 왜구에 대한 취급 방식은 전전·전종에는 <왜구=일본남아설>에 입각하여 왜구는 일본인의 해외팽창과 무위·무용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전후에는 전전·전종의 왜구에 대한 이미지를 내던지고 소위 실증주의의 옷을 걸쳐 입은 왜구론이 등장했는데 이는 <왜구=고려(조선)인 실체설>과 그 확장판 <왜구=다국적·다민족설>로 집약할 수 있다. 그들의 역사 사용법에서 실증주의는 침략범죄를 미화하는 방편으로 매우 유용·유효한 것이었다. 그들은 <왜구=고려(조선)인 실체설>에다가 중국인·포르투갈인 해적까지 왜구로 포함시키는 <왜구=다국적·다민족설>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전전·전종의 연구에서와는 사뭇 다른 왜구론, 그 실체가 애매모호한 왜구론이 재구성된 것이다[이영(2015)「영문판(英文版) 일본역사서 속의 한국사 및 한일관계사 관련 서술에 관한 조사 연구」『한립일본학』27, pp.291-314]. 그런데 서양의 일본사·일본학 연구자들은 일본학계의 왜구 연구에 작동하는 불순한 욕망, 특히 전후일본의 왜구 연구에 깔린 의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윤성익(2008)「전전·전종기 일본에서의 왜구상 구축」『한일관계사』31, pp.201-240; 이영(2017)「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사’ 및 ‘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23, pp.199-233].

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글씨도 새겨져있다. 바로 그 무라카미 가케치카가 임진왜란 당시 1592년 6월 5일~6일 1차 무계전투[1592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에서 손인갑과 정인홍의 부대가 왜군을 물리친 전투] 현장에 등장한다.

[역사적 배경]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후 동래로부터 좌·중·우의 삼로(三路)로 갈라 한양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때 우로의 왜군은 동래-김해-무계-지례-금산-추풍령-영동-청주-경기도를 따라 진군하였고, 경상북도를 장악한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는 개령현에 주둔하고 5월 19일에 부장인 무라카미 가케치카(村上景親)로 하여금 무계를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낙동강 연안 일대를 확보하여 수운을 엄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5월 29일 정인홍(鄭仁弘)이 고령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거창군사 송암 김면(松菴 金沔)과 함께 무계를 공격하기로 하였을 때 김면은 병장기가 완비되지 못해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6월 5-6일 사이의 제1차 무계전투는 전 참사 손인갑(孫仁甲)이 김면과 상의하지 않고 정인홍의 병사와 함께 공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³²⁾

[경과] 손인갑은 무계에 머문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6월 5일 밤부터 새벽에 걸쳐 정병(正兵) 50명을 이끌고 잠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초병 2명을 베고 대기병실에서 뛰어 나오는 30여 명을 참수하였다. 이때 병사 안에서 일어난 불길에 본진으로 번지자 적병이 당황하여 궁지에 빠짐으로써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부장 무라카미는 온몸에 10여 대의 화살을 맞은 채 간신히 도주하였다.

[의의와 평가]경상도 지역 왜적이 영산-창녕-현풍-무계-성주를 잇는 낙동강 수운 확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 무계전투는 경상우도 지역의 보전은 물론 경상도를 통해 전라도로 침공하려던 왜군의 작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³⁾

손인갑은 1592년 6월 5일 아침부터 3백여 의병을 차근차근 이동시켰다. 손인갑은 무기를 잘 다루는 50여 날쌔 병사를 직접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순식간에 30여 명의 왜적을 베었다. 그 과정에서 무라카미 가케치카는 10여 대의 화살을 맞고 병사들에게 사지가 들린 채 피신했다. 1592년 6월 6일 이후 적장 무라카미 가케치카는 상처를 치료하느라 한 달 내내 병상에 누워서 지냈다. 적들은 1592년 9월 11일 진지를 불태운 뒤 성주성 안으로 물러갔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무계전투에 관한 장면을 “손인갑은 무용(武勇)이 뛰어났는데 군진을 달리하면서도 정인홍의 명령을 받았다. 손인갑이 먼저 무계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군량(屯糧)을 불태우고 돌아왔다”고 하였다.³⁴⁾ 정인홍은 훗날 무계전투를 회상하면서

32) 김면, 정인홍, 손인갑 등의 의병 관련 활약상은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의 의병 관련 기사 및 경상도 지역의 전투상황 보고(『선조실록』1592년(선조25)6월28일, 『선조수정실록』1592년(선조25)6월1일) 참조

33) <http://goryeong.grandculture.net>(검색: 2017.09.14.)

“필마로 옛전장을 지나니[匹馬經過旧戰場] 흐르는 강과 남은 한은 모두 길구나[江流遺恨与俱長]. 지금 누가 주화론을 내세우는가[於今誰唱和戎說]. 그 해에 장군과 병사들은 원통하게 죽었도다[將士当年枉死亡]”라는 시를 남긴바 있다.³⁵⁾ 적어도 『선조수정실록』(1592년 6월 1일)의 기사를 통해, 고령 무계마을은 임진왜란 의병의 첫 의미 있는 승전지였으며, 그 역사적 성격을 놓고볼 때 의병기념관을 가질 만한 창의지역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확보할 수 있다.³⁶⁾ 무계는 임진왜란 당시 대구, 성주, 고령 사이를 오고가는 요충지였고, 실록에 첫 기록으로 등장한 의병의 활약상-전과가 바로 손인갑이 이끄는 의병이 고령 무계에서 싸운 전투였다. 왜군도 무계 일원의 군사적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했고, 왜군 수장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는 고령 개령현에 본부를 설치한 후 부장 무라카미 가케치카를 무계로 파송하여 주둔토록 했던 데서 전략적 중요성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무라카미수군박물관에서는 왜구의 두목으로 추앙받는 무라카미 가케치카를 현창하면서도, 그가 임진왜란 때에 무계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던 사실은 애초부터 언급 대상에서 삭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마바리 앞바다의 구루시마에서 동원된 왜군은 삼도무라카미(노지마, 구루시마, 인노시마) 왜구의 대표성을 갖는데, 이들은 1597년 9월 16일 명랑해협(진도 울돌목)에서 벌어진 해전에 투입되었다. 당시 왜군은 울돌목의 급류(험한 조류)를 이용한 이순신의 작전에 넘어가 4천여 명이 몰살당했다. 구루시마 미치후사(來島道總)와 함께 명랑해협에서 싸운 장수 6명은 고향 에히메현으로 살아서 돌아갔으나 구루시마 미치후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형 구루시마 미치유키(來島通之)는 1592년의 당포해전에서 죽었다.

현재 진도 왜덕산(倭德山,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소재)에는 4천여 명의 왜군이 죽어 그들의 일부가 묻혀있다는 얘기가 유통되고 있다. 구루시마수군의 후손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구루시마보존현창회(來島保存顕彰会) 회원들은 2006년 이래 매년 명랑축제 때 진도 왜덕산을

34) 『선조수정실록』1592년(선조25)6월1일

35) 『來菴集』, 卷1, 「過茂溪」

36) 정만진은 무계전투에 대해 “단순히 몇 명의 적을 죽인 승리가 아니라 왜군의 낙동강 수로 이용을 차단하여 보급로를 끊음으로써 적들이 일찍 남해안으로 물러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의의로 들고, 그러나 “무계는 매우 의미 있는 전승지로 역사에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 <표지석>이나 동네 안의 <마을유래비>에는 무계전투를 기억하기 위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무계마을의 표지석은 임진왜란 의병 첫 전승지라는 역사적 사실 대신 ‘효마을’ 세 글자를 마을 이름 위에 새겨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며, <마을유래비> 또한 무계 승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마을의 땅 모양이 춤추는[舞] 닭[鷄]처럼 생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계(舞鷄)라 불렀는데 뒷날 물가[溪]에서 번창할[茂] 마을이라는 뜻에서 무계(茂溪)로 바뀌었다는 것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라면서, 저간의 역사의식의 결핍을 문제삼은 바 있다[정만진(2016)「임진왜란 의병의 첫 승전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손인갑 장군, 경북 고령 무계 일본군을 선제 기습 공격, 쾌승」『오마이뉴스』2016년3월22일].

찾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히구마 다케요시(日畏健壬)는 한국 땅에서 잡자는 구루시마수군에 대해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³⁷⁾ 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두 개의 무덤(교토의 코무덤, 진도의 왜군무덤)에 대한 비교·대조·성찰은 불가능해 보인다.

구루시마수군은 구루시마 미치야스(来島通康, 1518~1567), 구루시마 미치후사(来島通総, 1561~1597) 부자시대에 전성기를 구가했다.³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구루시마는 무라카미 해적(村上海賊)이 2016년 4월에 일본유산으로 인정된 이래 세토내해 시마나미해도 주변을 포함하여 학생·생도의 원격수업 및 수학여행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³⁹⁾ 에히메지역의 수군(伊予水軍)과 그 가족·여성들에 대한 논의는 마츠야마시립시키킨박물관(松山市立子規博物館)의 패널전에서도 「도고와 고노씨~에히메 수군의 여성들~」(道後と河野氏~伊予の水軍の女性たち~)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국시대에 에히메와 히로시마를 잇는 시마나미 해도에 위치한 에히메현 오미시마섬(大三島)에 있는 오야마즈미신사(大山祇神社)를 지키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싸웠다고 전해지는 츠루히메(鶴姫)에 관한 이야기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노지마 무라카미수군(能島村上水軍)의 활동상을 그려낸 것으로 1576년의 기즈가와구치(木津川口) 전투에서 활약했던 주인공 무라카미 다케요시(村上武吉)의 딸 교(景)를 그린 와다 료(和田竜)의 장편역사소설 『무라카미해적의 딸』(村上海賊の娘)도 인기를 끌고 있다.⁴⁰⁾ 이들의 역사 기억에는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은 왜구의 잔인성·잔학상이 근대의 시점에서 대물림된 것일 뿐이고, 그러기에 이제는 학생들을 왜구 놀이·축제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수군의 역사에 대한 원격수업을 통해 그 잔학무도한 집단무의식은 재생산 공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구루시마수군의 역사는 일본 문화유산 및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나 성찰은 작동되지 않은 채 지역의 역사적 매력이나 특색을 전하는 전통문화 스토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⁴¹⁾ 그들의 보존현창활동 어디에도 약탈·살

37) 「来島顕彰会が韓国の日本水軍の墓訪問へ」『愛媛新聞』2006년 7월 27일; 「来島保存顕彰会が韓国・珍島訪問」『愛媛新聞』2006년 8월 16일; 「未来志向の交流継続を 韓国総領事が松山訪問」『愛媛新聞』2007년 2월 14일; 「韓国・珍島で異境の祖先の墓守る夫妻招く今治」『愛媛新聞』2007년 5월 16일

38) 「戦国の大海賊に迫る 来島村上氏の史料展」『愛媛新聞』2012년 10월 15일

39) 「ネット活用 広島の中学生在に水軍の歴史遠隔授業 今治・村上水軍博物館」『愛媛新聞』2016년 6월 3일; 「歴史に思い、しまなみの旅 開成高2年生が修学旅行」『愛媛新聞』2016년 6월 2일

40) 「潮流越え能島に上陸 小説の舞台でクルーズ始まる」『愛媛新聞』2014년 6월 29일; 「鶴姫」「景」にスポット, 伊予水軍の女性たち展 子規博」『愛媛新聞』2015년 3월 1일; 「海賊の娘」続編書くなら 今治で著者招きシンポ」『愛媛新聞』2015년 7월 26일; 原卓史(2017)「和田竜『村上海賊の娘』論: 成立過程と人物造型をめぐって」『尾道文学談話会会報』7, pp.39-53. 와다 료의 『무라카미해적의 딸』은 2011년~2013년에 걸쳐 『週刊新潮』에 연재된 소설로 2013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和田竜(2013)『村上海賊の娘(上・下)』新潮社). 일본에서는 『무라카미해적의 딸』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1) 「迫る急流 気分是水軍 来島海峡に観潮船就航」『愛媛新聞』2008년 3월 21일; 「今治市大島でセレモニー

상행위나 전쟁범죄의 잔인성·잔학상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단지 무책임하고도 물역사적인 현장의 재구성, 그에 관한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의 활용가능성을 찾아 나설 뿐이다.

무라카미수군박물관은 전국시대에 세토내해에서 활약한 무라카미수군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다.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미래세대들은 별다른 비판의식을 갖지 못한 채 소위 수군이라는 이름의 왜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우는 과정에 있다.⁴²⁾ 게이요제도(芸予諸島)로 불리는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바닷길(沿線地域, 渡しのルート)은 예로부터 14세기 중반(1349)에서 16세기 후반(1588)에 이르기까지 무라카미수군으로 불리는 왜구가 용맹·과감하게 활동했다고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 이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세토내해 지역 바다사람들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수군·정보·경제·교류·역사·문화 등이다.⁴³⁾ 세토내해 바다사람들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왜구=해적=수군의 속성 및 활동궤적과 무관한 삶의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 예로, 에히메현의 중소도시인 이마바리시는 무라카미수군의 활동궤적을 따라 현재 일본 해운조선업, 해사클러스터의 중심 조선클러스터와 선박대여업(선주업), 선박 금융 방면에서 성장 동력을 발휘하는 중이다.⁴⁴⁾ 왜구의 활동 거점·소굴에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어김없이 조선공업도시(조선소)가 만들어졌음에 유의할 일이다.⁴⁵⁾ 일본의 근대 이후의 균형, 해군기지, 선박과 함정을 만드는 조선소를 점으로 찍고 과거의 왜구의 근거지를 점으로 찍고 보면 그 점이 대체로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언덕위의구름박물관(坂の上の雲ミュージアム)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시를 대표하는 인물로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를 들 수 있다. 마츠야

来島海峡の潮流 大迫力 観潮船乗船30万人」『愛媛新聞』2016년8월25日; 「今治・尾道市申請 村上海賊 日本遺産に認定」『愛媛新聞』2016년4월26日; 「儒学者姜沆, 海賊来島村上氏 韓国首相候補の李洛淵氏, 愛媛と縁深く」『愛媛新聞』2017년5월16日; 「<2016えひめ十大ニュース>5 「村上海賊」日本遺産に認定 関心高く観光に好影響」『愛媛新聞』2016년12월22日

42) <http://www.city.imabari.ehime.jp/kanko/>(검색: 2018.07.01.)

43) 森浩一・網野善彦・渡辺則文(1997)『瀬戸内の海人たち: 交流がはぐくんだ歴史と文化』愛媛新聞社; 森浩一・網野善彦・生田滋・山内謙(1998)『瀬戸内の海人たち 水軍: 情報がもたらした文化と経済』愛媛新聞社

44) 조임제·송남경·최아름·정무섭(2015)「선박금융 특화된 글로벌 금융도시화 전략: BIFC가 나아가야 할 방향(B·U·S·A·N전략)」『경영건설탐연구』47, pp.169-177; 박명섭·홍란주·김민재·이재호(2017)「일본 이마바리 조선과 에히메 이마바리 선주에 관한 사례 연구」『해양비즈니스』38, pp.43-67; 한종길(2018)「이마바리 해사클러스터의 사례분석」『해운물류연구』34(4), p.699

45) 신영우(2013)「“발틱함대 격파 전범을 왜구에게 배웠다” 자랑」『충북일보』2013년2월5일

마시에서 도고온천에 세운 마츠야마시립시키키기념박물관(松山市立子規博物館, The Shiki Museum)은 문학박물관인 동시에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마츠야마문학의 핵심은 에히메현의 보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이다.

『언덕 위의 구름』은 『산케이신문』 석간에 연재된 장편역사소설(1968.4.22~1972.8.4.)로, 단행본으로 간행된 이래 현재까지 약 2,000만부가 판매된 초 베스트셀러이다. 이야기는 에히메(伊予) 마츠야마(松山)의 빈핍사족의 아들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 형제와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친구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를 등장시켜 메이지시대 청년들의 포부와 이상[언덕 위의 구름]을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아키야마 요시후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기병(騎兵) 제1여단장으로,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영국제 최신에 해군전함 미카사(三笠)의 작전참모로 러일전쟁을 맞는다.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입학을 꿈꾼 시인 지망생이었으나 가난 때문에 꿈을 접고 군인의 길로 들어섰으며 해군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NHK에서 방영됐던 시바 료타료의 원작 『언덕 위의 구름』은 특히 아키야마 사네유키를 소재로 한 것이다. 『언덕 위의 구름』은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책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지만⁴⁶⁾,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등을 등장시켜 각각의 점경(点景)을 잇는 방식으로 러일전쟁의 전경(全景)을 묘사하는 과정을 큰 그림으로 들여다보면, 『언덕 위의 구름』이 제국주의·군국주의·침략주의와 무관한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딘 생각, 단세포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언덕 위의 구름』의 클라이막스는 동해에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과 그의 작전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침시킨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⁷⁾

일본 최대 해적의 본거지이기도 한 무라카미해적은 에히메현의 이마바리시와 히로시마현의 오노미치시가 공동 신청하여 2016년도에 일본유산으로 인정받았다.⁴⁸⁾ 2018년에는 언덕위의구름박물관(坂の上の雲ミュージアム)에서 열린 마츠야마시 출신의 해군 작전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와 무라카미해적(村上海賊) 간의 접점을 찾고 그 연계성을 돌아보는 특별 전시가 열렸는데, 그것은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무라카미해적 등 일본 고래의 왜구의

46) 現代作家研究会(1996)『司馬遼太郎読本』徳間書店, pp.103-104

47) 정경훈(2010)「역사속의 인물: T자 전법 개발 아키야마 사네유키」『매일신문』2010년4월12일

48) 「<2016えひめ十大ニュース: <5>「村上海賊」日本遺産に認定 関心高く観光に好影響」『愛媛新聞』2016년12월22日; 「「村上海賊」など発信 日本遺産の魅力を海外へ、東京でフォーラム」『愛媛新聞』2017년3월8日; 「今治で村上海賊 別子銅山パネル展」『愛媛新聞』2018년9월17日; 「多彩な側面や意外性も 日本のは賊 魅力を発信 今治で報告会」『愛媛新聞』2018년11월27日; 「今治市大島でセレモニー 来島海峡の潮流 大迫力 観潮船乗船30万人」『愛媛新聞』2016년8월25日

전술을 배워 참고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⁴⁹⁾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법 중의 하나였던 T자전법(敵前大回頭, T자전법, Togo turn)은 당시 도고 헤이하치로의 참모였던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입안한 것이었다. 물론 T자전법은 도고 헤이하치로가 일본에서 개선제독(凱旋提督)=군신(軍神)=성장(聖將)으로 추앙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영웅화전략의 일환으로 의미부여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⁵⁰⁾ T자전법은 이순신장군의 학익진(鶴翼陣)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⁵¹⁾ 그런데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이순신과 학익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동서고금의 전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T자전법을 입안했다고 얘기한다.⁵²⁾ 하지만 결전에 앞서 아군에게 적군은 종대가 되도록 하고 아군은 횡대가 되도록 군진/전열을 정비·배치함으로써 아군의 포격 유효 사거리 안에 적을 최대한 끌어들여 포격을 가하는 전법은 구조적으로 학익진 전법을 원형으로 삼은 것이다.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말하는 동서고금의 전사 연구 범주에는 이순신장군의 학익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일전쟁 당시 양측 주력함끼리의 초반 결전은 30분(미카사의 첫 사격 2시 12분에서 2시 45분경까지) 남짓 사이에 일본 측의 압승으로 결말이 났다. 이는 도고 헤이하치로의 T자전법이 그야말로 러일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었다.⁵³⁾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30분론’에 의하면 소위 황국의 흥폐는 러일전쟁 당시 그 절묘한 타이밍 30분간의 결전(연합함대의 T자전법에 입각한 집중포격)에 의해 판가름 났다는 논리이다.⁵⁴⁾

시바 료타로는 러일전쟁에 대해, 당시의 사정/상태로는 일본이 러시아에 궤멸되고 만다는 공포심을 바탕으로 하여 싸운 조국방위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⁵⁵⁾ 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시바 료타로는 『언덕 위의 구름』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국가 존망이 걸린 국민전쟁-조국방위전쟁이라고 그 정당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던 인물이다. 시바 료타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둘러댄 것은 근대국가 일본을 패전국가가 아닌 전승국가로 전환시키려는 그의 욕망이 드러난 것이자 전전의 황국사관을 국민사관으로 표상하려는 목적의식이 발동한 것이다.⁵⁶⁾ 시바 료타로는 19세기 말의 조선은 유교의 관념론/명분론에 묶인 전형적인 아시아적 정체국(アジア的停滯国)이었

49) 「秋山真之と村上水軍のつながり探る特別展」『愛媛新聞』2018년 11월 24일

50) 이종각(2018)『일본인과 이순신: 왜, 그들은 이순신을 존경하는가』이상, pp.88-99

51) 『李忠武公全書』, 卷2, 「見乃梁破倭兵狀」. 정경훈(2010)「역사속의 인물: T자 전법 개발 아키야마 사네유키」『매일신문』2010년 4월 12일

52) 이종각(2018), 앞의 책, pp.98-101

53) 위의 책, p.91

54) 家村和幸 監修(2008)『戰略・戦術で解き明かす眞實<日本戦史>』宝島社

55) 現代作家研究会(1996)『司馬遼太郎読本』徳間書店, pp.103-104

56) 이복임(2011)「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49, pp.227-244

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고 일본의 생존을 위한 조국방위전쟁이라고 말하였다.⁵⁷⁾ 시바 료타로는 청일전쟁에 대해 “조선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나빠서 일어났다”거나 “조선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시바 료타로가 메이지시대를 성장의 단계로 평가한 것은 일본의 행위를 선행으로 귀결짓는 욕망의 변주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근대일본의 ‘부정의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⁸⁾

시바 료타로의 러시아 운운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필요성을 찾고자 했던 그 자신과 일본인들의 욕망체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언덕 위의 구름』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을 일본의 선행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특히 소설 형식을 빌린 러일전쟁 평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러일전쟁 예찬론을 통해 조선을 뭉개고 일본의 영광을 돋보이도록 만든 책이었다.

아키야마 사네키의 친구로 마사오카 시키를 들 수 있다. 마사오카 시키는 1867년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하나조노마치[花園町: 伊予国温泉郡藤原新町]에서 태어났다. 마사오카 시키는 하이쿠(俳句)나 단가(短歌)의 혁신을 외치고, 신체시(新体詩)와 사생문(写生文)을 주창하고 이를 시험하였다. 마사오카 시키로부터 하이쿠 혁신이 일어나 근대적 성격의 하이쿠가 새롭게 탄생하였다.⁵⁹⁾ 마사오카 시키는 청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사실로도, 마츠야마에 야구를 전한 사실로도 유명하다.⁶⁰⁾ 또한, 마사오카 시키와 나츠메 소세키 간의 문학 교류와 우정은 마츠야마를 공간배경으로 하여 피어났다.⁶¹⁾ 마츠야마시립시키기념박물관(松山市立子規記念博物館)은 마사오카 시키의 세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츠야마의 역사와 문학에 친숙해지고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문학계 박물관이다.⁶²⁾

나츠메 소세키의 작품으로는 특히 『도련님』(坊っちゃん, 1906)과 『마음』(こゝろ, 1914)을 들 수 있다. 『도련님』은 나츠메 소세키가 1895년(明治 28)에 근무했던 마츠야마중학교(松山中学校)를 무대로 씌어진 것이다.⁶³⁾ 나츠메 소세키는 1895년 4월에 마츠야마중학교에 부임하여

57) 김경호(2009)「일본 대중문학 속에서 왜곡되는 <조선>: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작품을 중심으로」『일본학연구』26, pp.287-310

58) 서영식(2011)「司馬遼太郎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 나타난 역사관 연구: 청일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12, pp.179-200

59) 愛媛新聞社編(1995)『俳句のふるさと・松山発 激論 俳句はどうなる-俳句の現在・過去・未来-』愛媛新聞社, 愛媛新聞社編(1997)『えひめ発 百年の俳句-郷土俳人シリーズ 高濱虚子』愛媛新聞社, 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編(2003)『えひめ発 百年の俳句-郷土俳人シリーズ 正岡子規 人と作品』愛媛新聞社, 阿部里雪(2004)『新編 子規門下の人々』愛媛新聞社

60) 愛媛新聞社編(1994)『記録と写真で見る[野球王国] 愛媛の野球100年史』愛媛新聞社, 結踏一朗(1997)『野球の島に四商ありて』愛媛新聞社

61) 이금재(2007)「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와 마츠야마」『한국사지리지학회지』17(3), pp.33-44

62) http://www.city.matsuyama.ehime.jp/shisetsu/bunka/sikihaku/sikihaku_HP.html (검색: 2017.10.27.)

63) 越智二良(1962)『愛媛の句碑, 歌碑』松菊堂, p.192. 나츠메 소세키가 교사로 근무했던 마츠야마중학교의 연혁에 관해서는 <http://www.matsuyama-meikyo.com/outline6.html> 참조

1896년 3월 구마모토의 제5고등학교로 가기까지 1년간 근무했다. 『도련님』은 나츠메 소세키가 마츠야마를 떠난 지 10년 후인 1906년(明治 39) 4월에 잡지 『두견새』(ホトトギス)에 발표한 작품이다.⁶⁴⁾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시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인기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의 배경이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도고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1800년대 후반에 운행했던 증기기관차를 ‘뽕짱열차’로 재현한 것도 지역 명물로 꼽히는데, 이 역시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과 함께 메이지시대의 영광을 재현코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는 웅대 미야자키 하야오의 문제와 연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산업/문화콘텐츠의 개가를 올린 인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⁶⁵⁾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제로센과 독도에 관한 발언을 보면 그의 역사식과 세계관의 지향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⁶⁶⁾ 일본 어린이 및 청소년용 작품·극우만화 열풍도 일본 청소년의 역사관에 극우논리가 침투되어 전형적인 우익세계관이 작동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바람이 분다>는 호리 다츠오(堀辰雄)의 소설 『바람이 분다』(風立ちぬ, *The Wind Rises*, 2013)를 영상으로 꾸민 것인데, 이는 일본해군 주력전투기 제로센의 개발자·전범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郎)를 모델로 그 일대기를 다루고 군국주의를 미화한 작품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호리코시 지로와 호리 다츠오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의 언설은 결국 극우적 코드와 결을 같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시는 2013년 4월 『언덕 위의 구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언덕 위의 구름 박물관>(坂の上の雲ミュージアム, SAKA NO UE NO KUMO MUSEUM)을 세웠다. 이는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이 3년간 NHK 드라마로 방영(2009.11.29.~2011.12.25.)되면서 소설 속의 시·공간 마츠야마시를 마을 만들기(町づくり)의 일환으로 새롭게 정비한 결과였다.

시바 료타로의 장편역사소설 『언덕 위의 구름』의 출발 무대였던 마츠야마는 43개 지점을 명작의 무대 탐방 산책 코스로 제시하면서 전시 시설(子規記念博物館, 坂の上の雲ミュージアム) 관련 정보도 상세 게재하였다.⁶⁷⁾ 마츠야마는 러일전쟁과 관련하여 1904년, 마츠야마의 포로수용소에 끌려온 러시아인 포로들을 맞이한 마츠야마 사람들의 ‘환대의 마음’(もてなしの心)을 보여주기도 한다. 러시아인 묘지보존회장 교구치 도시오(京口和雄)는 당시 마츠야마

64) 越智二良(1962)『愛媛の句碑, 歌碑』松菊堂, pp.190-192

65) 정재서(2004)「중국 상상력의 시각에서 본 일본 문화산업 속의 요괴 모티프: 『千と千尋の神隠し』, 『陰陽師』 등의 경우를 중심으로」『일본연구』23, pp.113-127

66) 조혜정(2015)「미야자키 하야오의 신도적 애니미즘 연구: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영화연구』66, pp.209-231

67) 愛媛新聞サービスセンター編(2009)『「坂の上の雲」の松山を歩く』愛媛新聞社

의 정경, 러시아인 포로들의 모습, 러시아인묘지 보존활동 등을 다룬 책자를 발간하였다.⁶⁸⁾ 1904년 3월부터 2년간 마츠야마에 4,000명~6,000명을 헤아리는 러시아병 포로가 억류되었다. 당시 에히메현 인구의 1할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병 포로는 시내를 산보하고 도고온천에서 목욕하고, 자전거 경주를 즐겼다.⁶⁹⁾ 메이지시대 이래 마츠야마(松山), 이마바리(今治), 우와지마(宇和島) 등을 중심으로 한 에히메현의 1세기는 전쟁, 정치, 교육, 문화 방면에서 여러 각별한 사정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⁷⁰⁾ 참고로 러일전쟁 당시 인명 피해 상황은 러시아측(전사: 4,524명, 포로: 6,168명)이 일본측(전사: 116명, 부상: 570명)보다 훨씬 컸다.⁷¹⁾

마츠야마시의 경우, 이를 거점으로 삼아 과거의 영광을 조립하여 관광 상품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하게 꿈틀거렸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에히메의 보수성이 짙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5년 후쇼사(扶桑社) 발행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가 등장했을 때 이 교과서를 택한 곳은 도쿄도와 에히메현 딱 두 곳이었다.⁷²⁾ 그 교과서라는 게 시바 료타로에서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작동하는 극우의 준동이었다. 시바 료타로를 빗댄 후지오카 노부카츠의 논리를 들여다보자. 후지오카 노부카츠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이끌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암흑사관·반일사관·자학사관으로 물들어있다는 극우적인 주장과 함께,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에 나타난 러일전쟁관을 받아쓰기하면서, 러일전쟁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가 살기 위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승리를 일궈낸 조국방위전쟁이라고 했다.⁷³⁾ 그러면서 지금의 일본인들은 전략적·지정학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 자체, 위협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점을 대비적으로 지적하였다.⁷⁴⁾ 그 다음, 후지오카 노부카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전후 일본과 전전·전중의 일본을 연속상태로 바라보면서 전전·전중의 영광을 외치는 극우적 논조를 이어가는 데 그 의도가 있다.⁷⁵⁾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는 극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당시

68) 京口和雄(2006)『今に生きる「もてなしの心」松山・ロシア人墓地保存100年』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

69) 宮脇昇(2005)『ロシア兵捕虜が歩いたマツヤマ: 日露戦争下の国際交流』愛媛新聞社

70) 仲川幸男(2006)『愛媛, この百年』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

71) 이종각(2018), 앞의 책, p.93

72) 角南圭祐(2007)「에히메가 보여준 일본의 무지」『한겨레21』2007년6월14일

73) 정재정(1998)『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 인식』현음사, pp.338-340

74) 위의 책

75)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http://www.ptngo.or.kr>, 공동대표: 이상훈·이승희·정선영)가 평택시에 제출한 의견서(2005.5.11.)에서는 평택시·마츠야마시 우호교류 합의서(2004.10.25.)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무원칙·무분별한 합의라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로 에히메현이 후쇼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적극적이라는 점, 마츠야마시가 극우의 상징 언덕위의구름박물관 설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 동학농민군을 참살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마츠야마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지오카 노부카츠의 극우적 역사관이 시바 료타로에게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유신을 내세운 정파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나왔지만 대개 선거에서 떨어져 세력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바로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시이다. 지역정당 <마츠야마유신회>는 에히메현 지사와 마츠야마시 시장을 석권했다.⁷⁶⁾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그 모체였다. 2012년에 국정 진출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당명을 <오사카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개명하여 창당을 공식 선언하였다. 2014년에는 <결속당>(結いの党)과 합당하는 문제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대립하였다. 이시하라 계파는 <차세대당>을 창당하였으며 하시모토 계파는 이전의 당명을 이어받아 새롭게 <일본유신회>를 창당하였다. 그러다가 <결속당>과 <일본유신회>는 <유신당>으로 통합하였다.⁷⁷⁾ 에히메현이 보수적인 분위기를 질게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4. 반전·평화교육을 위한 전망

에히메현의 근현대사 검토를 통해 에히메(愛比売=愛媛)-사랑스런 여인 신공황후의 신라침공담과 정한론 에너지는 침략전쟁, 식민지배, 전쟁범죄의 구도를 질게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는 정한론 에너지가 어떤 충전방식을 취해왔는가를 포착하는 장면이자, 일본의 47개 현 중에서도 에히메현이 갖는 전쟁의 작동법칙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무라카미수군박물관은 왜구=수군의 전시 및 축제를 이어가는 양상을 통해 왜구의 잔인성·잔학상은 소거된 채 일본 남아의 기상을 대외팽창의 원동력으로 치켜세우고 이를 기억·전시하는 치명적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출신의 젊은이들(아키야마 요시후루, 아키야마 사네유키, 마사오카 시키)을 등장시켜 메이지시대 청년들의 포부와 이상,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역동성을 그려낸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위의 구름』과 이를 기념·전시하는 언덕위의 구름박물관은 앞서 말한 무라카미수군박물관의 경우처럼 일본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일본이 극우로 치닫는 역사수정주의와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도식을 통해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나 성찰의 장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에히메현을 중심으로 반전·평화교육론의 소재를 찾아 그 의미맥락을 밝히고자 하는 본

76) 신영우(2012)「육일기와 구일본군 무기를 전시한 관광지 도고온천」『충북일보』2012년10월23일

77)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 2017.09.15.)

연구에서는 천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장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동학농민군 진압 전담부대이자 섬멸작전 주축부대였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19대대의 편성지 및 해산지가 바로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였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제19대대 병사들이 시코쿠의 4개현(에히메현, 고치현,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출신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들이 시코쿠지역에서는 최빈곤층이었다는 사실, 1894년 당시 시코쿠 4개현에서 간행되었던 『가이난신문』(海南新聞), 『우와지마신문』(宇和島新聞), 『도쿠시마니치니치신문』(徳島日日新聞), 『가가와신문』(香川新聞) 등에는 후비보병 제19대대 및 그 병사들의 동향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⁷⁸⁾ 청일전쟁과 연동된 사건으로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편성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동학농민군 3만·5만을 학살한 동아시아근대사 최초의 제노사이드였으며, 이는 그들이 말하듯 문명의 전쟁이 아니라 야만의 전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언설에서 야만의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찰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 단적인 사례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쿠토미 소호는 청일전쟁은 “가장 큰 교육”이고, “가장 큰 교육가”이고, “세상의 소위 교육가가 실패한 점을 가장 훌륭히 성공시킨 전쟁”이라는 전쟁극교육론을 표방하는 가운데, 청일전쟁은 그 교양의 효과도 절대적인 것이어서 ‘사천만의 애국자’를 ‘건강한 아이’로 출산한 전쟁이었다고 했다.⁷⁹⁾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은 에히메현 마츠야마시를 소설 작법의 배경으로 삼아 러일전쟁을 일본의 국가적 운명을 바꾼 전쟁으로 형용하였다. 2004년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지식인들은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지렛대로 삼아 백 년 전의 감격과 환희를 21세기에 재현하기 위해 전전·전중의 전쟁주의 역사의식을 부추긴 바 있다.⁸⁰⁾ 그런데 그 감격·환희의 시대는 매우 수상쩍은 것으로 이는 일본 극우의 제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회상 기억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예춘추』가 1999년 및 2003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와타나베 하야오(渡辺恒雄), 에사카 아키라(江坂彰), 츠루미 준스케(鶴見俊介), 이케이 마사루(池井優) 등 일본의 저명인사를 상대로 하여 “후세에 전하고 싶은 20세기의 책(後世に伝えたい20世紀の本)”과 “일본의 재발견으로 이어지는 책(日本の再発見につながる本)”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78) 박맹수(2012)「일본 야마구치현립 문서관 소장 미나미가 동학문서 해제」『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찾아가다』(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2012.4.16.~12.31.); 박맹수(2018)「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明治二十七年日清交戦従軍日誌』 해제」『한국독립운동사연구』63, pp.203-228

79) 徳富蘇峰(1894)「愛国的教育」『国民之友』241(1894.12.13.); 김성은(2010)「미국계 선교사와 일본 근대 지식인의 긴장관계: 미선스쿨 교육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50, p.332에서 재인용

80) 이광래(2005)「일본현대사를 해독한다」『한일관계사연구』22, pp.195-216

때 두 조사에서 모두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 제일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들이 러일전쟁을 무대로 하여 메이지시대의 인물 군상을 묘사한 『언덕 위의 구름』을 추천한 것은 왜일까. 이는 그들이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을 “일본을 바로잡는 최량의 교과서(日本を見直す最良の教科書)”로 꼽았다는 것을 말해준다.⁸¹⁾

일본 우익이 표방하는 역사수정주의·일본주의는 시바 료타로의 사관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다보니 메이지시대의 대외팽창주의와 침략전쟁에는 눈을 감은 채 동아시아 역사를 자학이 아닌 자랑의 역사로 다루거나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관·역사의식으로는 진정한 역사교육도 제대로 된 평화교육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근현대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시바 료타로에 의해 정리된 바와 같이 일본을 영광과 감격과 환희의 역사로 바라보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음을 여지없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침략과 지배를 일본의 불가피한 선택, 일본이 나아갈 역사발전단계 운운하는 망상을 두고도, 그 정한론적 구상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해 맹목적·긍정적·우호적 반응과 평가를 보인다면, 이야말로 단세포적·몰역사적 관점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근대사=전쟁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를 역사발전단계로 보는 정신구조에 함몰된 것이라면, 그 자장 안에서 피어나는 평화교육론은 세계보편의 평화교육론과는 지향을 달리하는 거짓 평화교육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현재 야스쿠니의 이름으로 감정의 연금술을 확대·적용하는 과정에 있다.⁸²⁾ 전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 불행을 행복으로 탈바꿈하는 연금술은 결국 일본을 갈라파고스 평화론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언덕 위의 구름을 향한 욕망은 그들을 그 반대편 언덕 아래의 늪, 그 수렁에 깊이 빠트릴 수도 있다. 이는 관념이 아닌 현실의 차원에서, 그 현상이 상당한 범위와 심각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반전과 평화를 말하면서도 야스쿠니신드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는 에히메현의 경우 더 짙게 드러난다. 에히메현은 거짓 신공황후의 신라침공담이 자가발전을 이루었던 역사적 장소인데다가 정한론을 역사의 중대 발전단계로 왜곡·날조함과 동시에, 왜구=해적=수군의 행태를 축제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방식을 통해 전쟁범죄에 대한 무반성·무책임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청일전쟁-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간악한 정한론의 실행 과정은 도쿠토미 소호의 청일전쟁교육론과 시바 료타로의 러일전쟁찬양론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모두 시코쿠지방, 특히 에히메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81) 위의 논문

82) 高橋哲哉(2005)『靖国問題』筑摩書房. 현대송 역(2005)『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역사비평사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히메는 특히 정한론 에너지를 충전 받는 장소였음을 기억해둘 일이다. 전쟁의 영광을 언덕 위의 구름으로 바라보는 구도에서 언덕 아래의 높음 무엇이겠는가. 그 연장선 어느 지점에서든 반전사상과 평화교육론의 단서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도쿠토미 소호나 시바 료타로의 전쟁찬양론과는 관점을 달리하는 전쟁반대론·반전시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일은 일본판 반전·평화교육론의 흔적,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잇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 근대의 반전시의 기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저항했던 츠루 아키라(鶴村),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군국주의·제국주의의 광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생을 담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⁸³⁾ 교육칙어를 풍자했던 츠루 아키라의 반전센류(反戰川柳)나 러일전쟁에 징집된 동생의 무사귀환을 기리는 요사노 아키코의 반전시(反戰詩)를 경거망동으로 처리하는 직각적 대응보다는 이에 대한 성찰과 논의를 진지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일본근대정신사에서 극도로 빈약한 반전시의 계보, 그 마이너 장르에 대한 논의의 심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요사노 아키코의 “부모님이 칼을 쥐어주면서[親は刀をにぎらせて]/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쳤더니[人を殺せと教へしや]/사람을 죽이다 죽으라고[人を殺して死ねよとて]/24년 동안 너를 키웠겠느냐[廿四までを育てしや]”라는 말로 이어지는 반전시에 대해, 이를 비국민, 비애국자, 역적이나 가질 수 있는 상상력 정도로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 바닥은 반전·평화교육을 거론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급수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침략과 전쟁과 그 만행을 전시하고 기념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거기에서 제대로 된 평화론과 교육적 대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발 반전·평화교육론의 한계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일본 전체가 갖고있는 갈라파고스 평화론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물론, 그 안에서도 에히메현이 갖는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신공황후, 히메다루마, 무라카미수 군박물관, 언덕위구의름박물관 등을 에너지공급원으로 삼아 역사수정주의와 일본주의를 짚게 드러내는 그 물역사성의 현장과 그 정신지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83) 棚沢健(2018)「칙어와 소칙과 반전 센류」『비교문화연구』51, pp.25-44. 이하 소개될 요사노 아키코의 반전시[与謝野晶子(1904)「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旅順の攻囲軍にある弟宗七を歎きて>」『明星』1904년9월호]는 神保光太郎編(1965)『与謝野晶子詩歌集 青春の詩集/日本篇』白鳳社, pp.34-35 참조. 1971년 10월 2일, 요사노 아키코의 모교(大阪府立泉陽高等学校)에서는 창립70주년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시를 새긴 <晶子詩碑>를 세웠다. <https://www.osaka-c.ed.jp/senyo/summary/history.html>(검색: 2019.09.29.)

【참고문헌】

- 『李忠武公全書』, 『來菴集』, 『宣祖修正實錄』, 『三國志』, 『古事記』, 『日本書紀』.
- 구건서(2017)「일본 에히메현에 있어서 지역문화정책의 특징」『일본학보』111
- 김경호(2009)「일본 대중문학 속에서 왜곡되는 ‘조선’: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작품을 중심으로」『일본학 연구』26
- 김명수(2011)「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동북아역사논총』34
- 김성은(2010)「미국계 선교사와 일본 근대 지식인의 긴장관계: 미션스쿨 교육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50
- 김화경(2009)「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설화의 연구」『동아인문학』15
- 김희영(1990)『이야기일본사』청아출판사
- 노성환(2016)「일본 에히메의 히메다루마와 신공황후전승」『일본문화학보』71
- _____(2017)「일본 에히메의 고대한국 전승」『일본어문학』77
- _____(2017)「일본 시코쿠의 임진왜란 전승과 예능」『일본문화학보』73
- 박맹수(2012)「일본 야마구치현립 문서관 소장 미나미가 동학문서 해제」『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찾아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 _____(2018)「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明治二十七年日清交戦從軍日誌’ 해제」『한국독립운동사연구』63
- 박명섭·홍란주·김민재·이재호(2017)「일본 이마바리 조선과 에히메 이마바리 선주에 관한 사례 연구」『해양 비즈니스』38
- 서영식(2011)「司馬遼太郎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 나타난 역사관 연구: 청일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12
- 신영우(2012)「옥일기와 구일본군 무기를 전시한 관광지 도고온천」『충북일보』2012년10월23일
- _____(2013)「왜구: 매년 성대히 재현하는 왜구 축제」『충북일보』2013년1월29일
- _____(2013)「“발틱함대 격과 전범을 왜구에게 배웠다” 자랑」『충북일보』2013년2월 5일
- 윤성익(2008)「전전·전중기 일본에서의 왜구상 구축」『한일관계사』31
- 이광래(2005)「일본현대사를 해독한다」『한일관계사연구』22
- 이금재(2007)「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와 마츠야마」『한국사지리지학회지』17(3)
- 이기용(2007)「일본침략사상의 원형인 신공황후설화」『일본사상』13
- 이복임(2011)「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49
- 이영(2015)「영문판(英文版) 일본역사서 속의 한국사 및 한일관계사 관련 서술에 관한 조사 연구」『한립일본학』27
- _____(2017)「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사’ 및 ‘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23
- 이종각(2018)『일본인과 이순신: 왜, 그들은 이순신을 존경하는가』이상
- 정경모(2009)「조선 침탈 원흉 길러낸 요시다 쇼인」『한겨레』2009년9월8일
- 정경훈(2010)「역사속의 인물: T자 전범 개발 아키야마 사네유키」『매일신문』2010년4월12일
- 정만진(2016)「임진왜란 의병의 첫 승전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손인갑 장군, 경북 고령 무계 일본군을 선제 기습 공격, 패승」『오마이뉴스』2016년3월22일
- 정재서(2004)「중국 상상력의 시각에서 본 일본 문화산업 속의 요괴 모티프: 『千と千尋の神隠し』, 『陰陽師』 등의 경우를 중심으로」『일본연구』23
- 정재정(1998)『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 인식』현음사
- 조임제·송남경·최아름·정무섭(2015)「선박금융 특화된 글로벌 금융도시화 전략. BIFC가 나아가야할 방향(B·

- U·S·A·N전략」『경영컨설팅연구』47
- 조혜정(2015)「미야자키 하야오의 신도적 애니미즘 연구: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영화연구』66
- 최문정(2009)『문학사를 통해서 본 한일의 지배이념과 문화(상)』고전산책
- 최혁(2018)「전라도역사이야기-53. 왜군이 묻혀 있는 진도 왜덕산(下)」『남도일보』2018년8월12일
- 한종길(2018)「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의 사례분석」『해운물류연구』34(4)
- 허석(2016)「근대일본의 텍스트적 재현과 그 이데올로기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드라마 ‘아쓰히메’와 ‘언덕 위의 구름’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69(1)
- 榑沢健(2018)「칙어와 소칙과 반전 센류」『비교문화연구』51
- 角南圭祐(2007)「에히메가 보여준 일본의 무지」『한겨레』2007년6월14일
- 中田稔(2010)「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제2분과 일본편)』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阿部里雪(2004)『新編 子規門下の人々』愛媛新聞社
- 家村和幸 監修(2008)『戦略・戦術で解き明かす眞實<日本戦史>』宝島社
- 愛媛新聞社編(1994)『記録と写真で見る[野球王国] 愛媛の野球100年史』愛媛新聞社
- _____ (1995)『俳句のふるさと・松山発 激論 俳句はどうなる~俳句の現在・過去・未来~』愛媛新聞社
- _____ (1997)『えひめ発 百年の俳句-郷土俳人シリーズ 高濱虚子』愛媛新聞社
- 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編(2003)『えひめ発 百年の俳句-郷土俳人シリーズ 正岡子規: 人と作品』愛媛新聞社
- 愛媛新聞サービスセンター編(2009)『「坂の上の雲」の松山を歩く』愛媛新聞社
- えひめ地域政策研究センター編(2013)『愛媛縣の近代化遺産: 近代化えひめ歴史遺産總合調査報告書』愛媛縣教育委員会文化財保護課
- 越智二良(1962)『愛媛の句碑, 歌碑』松菊堂
- 小野林太郎(2011)『海域世界の地域研究: 海民と漁撈の民族考古学』京都大学学術出版会
- 川岡勉・西尾和美(2004)『伊予河野氏と中世瀬戸内世界: 戦国時代の西国守護』愛媛新聞社
- 現代作家研究会(1996)『司馬遼太郎読本』徳間書店
- 京口和雄(2006)『今に生きる「もてなしの心」松山・ロシア人墓地保存100年』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
- 佐藤弘夫(2006)『神国日本』筑摩書房. 성해준 역(2014)『신국일본』논형
- 司馬遼太郎(1998)『昭和という国家』NHK出版
- 高橋哲哉(2005)『靖国問題』筑摩書房. 현대송 역(2005)『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역사비평사
- 徳富蘇峰(1894)「愛国的教育」『国民之友』241(1894.12.13.)
- 仲川幸男(2006)『愛媛, この百年』愛媛新聞メディアセンター
- 中村英利子(2001)『漱石と松山: 子規から始まった松山との深い関わり』アトラス出版
- 原卓史(2017)「和田竜『村上海賊の娘』論: 成立過程と人物造型をめぐる」『尾道文談話会会報』7
- 松本重彦(1944)「元寇掃蕩の教訓」『文教の朝鮮』1944年9月號
- 水野裕(1985)『日本古代の国家形成』講談社
- 宮脇昇(2005)『ロシア兵捕虜が歩いたマツヤマ: 日露戦争下の国際交流』愛媛新聞社
- 結踏一朗(1997)『野球の島に四商ありて』愛媛新聞社
- 森浩一・網野善彦・渡辺則文(1997)『瀬戸内の海人たち: 交流がはぐくんだ歴史と文化』愛媛新聞社
- 森浩一・網野善彦・生田滋・山内護(1998)『瀬戸内の海人たち 水軍: 情報がもたらした文化と経済』愛媛新聞社
- 与謝野晶子(1904)「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旅順の攻囲軍にある弟宗七を歎きて」神保光太郎編(1965)『与謝野晶子詩歌集: 青春の詩集/日本篇』白鳳社

吉野誠(2004)『東アジア史の日本と朝鮮』明石書店. 한철호 역(2005)『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책과함께
 読売新聞文化部(2014)『愛唱歌ものがたり』岩波書店
 和田竜(2013)『村上海賊の娘(上・下)』新潮社

[愛媛新聞記事]

「来島顕彰会が韓国の日本水軍の墓訪問へ」『愛媛新聞』2006年7月27日
 「来島保存顕彰会が韓国・珍島訪問」『愛媛新聞』2006年8月16日
 「未来志向の交流継続を 韓国総領事が松山訪問」『愛媛新聞』2007年2月14日
 「韓国・珍島で異境の祖先の墓守る夫妻招く 今治」『愛媛新聞』2007年5月16日
 「迫る急流, 気分は水軍 来島海峡に観潮船就航」『愛媛新聞』2008年3月21日
 「戦国の大海賊に迫る 来島村上氏の史料展」『愛媛新聞』2012年10月15日
 「潮流越え能島に上陸 小説の舞台でクルーズ始まる」『愛媛新聞』2014年6月29日
 「鶴姫」景にスポット, 伊予水軍の女性たち展 子規博」『愛媛新聞』2015年3月1日
 「海賊の娘」続編書くなら 今治で著者招きシンポ」『愛媛新聞』2015年7月26日
 「今治・尾道市申請 村上海賊 日本遺産に認定」『愛媛新聞』2016年4月26日
 「歴史に思い, しまなみの旅 開成高2年生が修学旅行」『愛媛新聞』2016年6月2日
 「ネット活用 広島の中学生に 水軍の歴史 遠隔授業 今治・村上水軍博物館」『愛媛新聞』2016年6月3日
 「今治市大島でセレモニー 来島海峡の潮流 大迫力 観潮船乗船30万人」『愛媛新聞』2016年8月25日
 「2016えひめ十大ニュース<5>「村上海賊」日本遺産に認定 関心高く観光に好影響」『愛媛新聞』2016年12月22日
 「村上海賊」など発信 日本遺産の魅力を海外へ, 東京でフォーラム」『愛媛新聞』2017年3月8日
 「儒学者姜沆, 海賊来島村上氏 韓国首相候補の李洛淵氏, 愛媛と縁深く」『愛媛新聞』2017年5月16日
 「今治で村上海賊, 別子銅山パネル展」『愛媛新聞』2018年9月17日
 「秋山真之と村上水軍のつながり探る特別展」『愛媛新聞』2018年11月24日
 「多彩な側面や意外性も 日本の海賊 魅力を発信 今治で報告会」『愛媛新聞』2018年11月27日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29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에히메: 사랑, 전쟁, 교육

박균섭

에히메현은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한 현이다. 에히메현 연관 주제어로는 신공황후, 히메다루마, 무라카미수군 박물관, 언덕위의구름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관주제어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에히메현의 정치·사회·역사·문화적 측면을 사랑, 전쟁, 교육의 범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에히메, 그 사랑스럽다는 여인이 신공황후를 상징한 것임에 유의할 때, 그 내러티브는 신라침공담과 정한론 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요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시바 료타로는 에히메현을 전경으로 한 소설 『언덕위의 구름』을 통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미화·찬양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시바 료타로는 메이지 일본을 ‘언덕 위의 구름’의 시대로 형용한 반면 러일전쟁 이후의 일본을 ‘언덕 아래의 늪’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분 및 접근법은 현재 일본이 언덕 위의 구름의 시대를 재현코자 하는 극우적 움직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언덕 위의 구름이 문학적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 일본의 근대 전쟁사를 그럴듯하게 형용하는 것인 한, 이는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광기의 역사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과 추세라면, 일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전·평화 교육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Essays on Ehime Prefecture: Love, War, and Education

Park, Kyoan-Seop

Ehime Prefecture is one of the 4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Japan. The main topics of Ehime Prefecture include Jingu Empress, Hime Daruma, Murakami Suigun Museum, and Saka No Ue No Kumo Museum. As a whole, we can summarize the political,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phenomena of Ehime Prefecture as problems of love, war, and education. Shiba Ryotaro presented a perspective beatifying and prais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through the novel "Clouds on the Hill" with Ehime Prefecture in the foreground. Meiji Japan was used as the age of clouds on the hill. But the Russo-Japanese War, Japan has fallen into the age of swamps under the hill. Japan does not hesitate to show the extreme rightists movement to reproduce the age of the clouds on the hill now. However, their extreme rightists movement may not be the language of glory but the language of insanity. Japan, as it has been so far, will not be able to carry out anti-peace education problems in the future. With this trend and situation, Japan will continue to be a country that cannot afford anti-war and peace education as it has been until now.